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인도주의는 '불구하고' 정신이 우선돼야

머릿글 기은경제연구소 소장 조병선

5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환경재단 대표 최열

커버스토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특별기획-창조경영 성원교역(주) 회장 김찬송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지자체특강 부산대학교 총장 김인세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기림산방 원장 김종수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행복한 독서경영

정보비타민

조순칼럼

표지인물 한완상 총재 / 사진 오경근 원장

5

2007 May

등록 제15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5월 1일 발행인 : 양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I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2500(대) F.2203 1974 www.khid.or.kr 디자인 : 팀장 이계경 인쇄 : (주)동명인쇄 T.462 6323

웨딩센터 오픈으로 더욱 새로워진
롯데호텔웨딩
COLOR YOUR WEDDING

| 롯데호텔서울 연회·웨딩 상담실 Tel. 317-7219 |

롯데호텔만의 특별한 웨딩제안

컬러웨딩
파티웨딩
레스토랑웨딩

전문 웨딩로슈어가 무대와 테이블, 꽃장식 하나까지 당신이 원하는 컬러로 연출하는 색다른 테마 웨딩 라이브 재즈연주와 전문 DJ의 믹싱에 맞춰 신랑 신부, 하객들이 자유롭게 춤추는 서양식 트렌디 웨딩 롯데호텔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페닌술라에서 요리와 와인을 즐기며 진행되는 캐주얼 한 스타일리시 웨딩

THE LOTTE WEDDING

Eternity

www.lottewedding.co.kr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과 가업(家業) 승계

조병선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소장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비중이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하여 사회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도전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99.8%, 고용면에서는 86.5%, 그리고 생산액은 48.6%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엔진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와 같이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제도의 확산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며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의 관련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창업세대 경영자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일구어온 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역동적인 경영활동이 절실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경쟁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꼭 필요한 설비투자도 미루게 되고,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이전을 소홀히 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의 경영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증가, 투자부진 등의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에서는 경영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속세제와 후계자 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는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독일은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을 잘하는 경우, 매1년마다 10분의 1씩 감면하면서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미국에서도 가족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입법을 수년 전에 단행했다.

성공적인 경영승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여러 대(代)를 이어 온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승계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량있는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단순한 개인 부(富)의 상속과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승계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대하여는 창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활력유지를 위한 창업촉진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 온갖 정성과 자원을 투자하여 일구어 놓은 기업의 유지 및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영승계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세기 글로벌화·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영승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조병선 소장

1954년 생으로 건국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에서 경제공법과 은행법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기업은행 조사부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기은경제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과 건국대 겸임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5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500회 기념 포럼

세계화시대,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과제

1500회 5월 3일 오전 7시-9시30분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세계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 그리고 협력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정치·군사·경제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이 보여준 파워와 21세기 아시아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상황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미FTA 체결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6자회담과 2.13 합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이자 자원빈국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500회 기념포럼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한덕수 총리를 초빙하여 세계화시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한국호의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정종욱 전 중국대사,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 제8회 행정고시 합격 | 특허청장 | 통상산업부 차관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 산업연구원 원장 | 국무조정실장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상훈> 황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패널 토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정종욱

전 중국대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동양제철화학 회장



신상훈 신한은행 은행장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1967년 한국산업은행 입행 | 1982년 신한은행 입행, 창립멤버 | 신한은행 영동지점장, 오사카지점장 | 신한은행 자금부장, 영업부장 | 신한은행 영업부장 이사대우 | 신한은행 상무 |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 한국 CEO포럼 공동대표

<상훈> 산업부장, 재정경제부장관표창 외



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제8회 외무고시 합격 | 1974년 외무부 입부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駐캐나다참사관 | 외무부 의전담당관 |駐미대사관 경제참사관 |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駐제네바공사 |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국장 |駐샌프란시스코 총영사 | 외교통상부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상훈>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이승남 베스트클리닉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 가정의학과 전문의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의 | 대한체형의학회 회장 | 국제자연치유의학연맹 이사 |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이사 | 서울아산병원 외래교수 | 한양대병원 외래교수 | 국립암센터 암고위 지도자과정 연수 | 포천중문대 대체의학 연수 | 멕시코 티유아나, 오아시스 병원 연수 |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회 '나비' 회원

<저서> 내 몸을 살리는 생활 속의 웰빙 향암 식품, 제철에 제대로 먹자 외

신한은행의 도전과 성공

1501회 5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난해 4월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통합하면서 자산, 영업점포, 고객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LG카드 인수를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통합 후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역량을 집중한 까닭에 통합 당시의 은행권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올해 신한은행은 그간 다져놓은 통합 기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업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상훈 행장이 은행 통합 1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은행들을 본받아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캄보디아 현지 은행 인수와 인도 첸나이 지점 개설 등 글로벌 진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 행장은 올해 직원들간의 정서적·문화적 통합인 '감성통합'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성통합'에 본격 나설 계획을 밝혔다. 최근 지식경영, 블루오션, 6시그마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이성통합'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자산과 수신규모 등 전통적인 외형 기준이 아니라 고객에게 기대수준을 초월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규모와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1등으로 인정받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포용력과 추진력을 앞세워 통합 신한은행을 이끌고 있는 신상훈 행장을 초빙하여 은행 통합 1년의 성과와 함께 '고객이 인정하는 1등은행'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미FTA의 성과와 향후 과제

1502회 5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2일, 14개월이라는 협상 시간 끝에 타결됐다. 그러나 협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6월 정식 협정체결, 그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협상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FTA 체결은 열강의 강요로 이루어진 구한말의 개방에 이은 '제2개국'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우리 경제발전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 쇠고기, 섬유, 농업 등 핵심 분야 협상에서 혼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되돌아보면 우리로서는 얻은 것도 있고 아쉬운 대목도 있다. 어쨌든 우리 경제는 한미 FTA 체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투자와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측 FTA 수석대표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대표를 초빙하여 이번 협상의 성과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글로벌시대, 경제통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남보다 10년 젊게 사는 법 -건강도 재산, 장기투자전략이 필요하다

1503회 5월 3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의 인생을 냉정하게 세분화해보면 거의 3분의 1은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이다. 앞날이 창창한 30~40대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체의 모든 부품이 망가져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서글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대책을 위한 재테크,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인 '건강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로또나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확률이 낮듯이, 건강 역시 꼼꼼한 투자 계획이 없다면 뜻밖의 질병으로 일생이 가난해질 수 있다. 재산을 불려나가는 제1원칙이 저축인 것처럼 건강 역시 있을 때 투자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40~50대에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후방지도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비축된 건강자산을 활용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베스트클리닉 이승남 원장을 초빙하여 의학적 토대를 근거로 남들보다 10년은 젊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건강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기투자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9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4월 12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환경은 21세기 반도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박하고 심각하다. 아마 30년 전에 제가 환경을 이야기했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생태학자, 정치인, 기업 CEO까지 환경문제를 거론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이 있었다. 그때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로 특별상을 받았다. 그에게 만약 당신이 하루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주저 없이 부시 대통령이 탈퇴한 교토의정서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환경의 이상징후, 지구온난화 경제개발 될수록 환경은 파괴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징후는 심각하다. 지난 2월 21일, 대구 국제보상운동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기념공원 앞에 동백꽃이 활짝 핀 것을 봤다. 제가 결혼을 3월 6일에 했고, 그때 아내와 해남에 갔는데, 대구보다 남쪽인 그곳에도 아직 동백꽃이 피지 않았었다. 2월 28일에는 경남 창녕 우포늪에 갔는데, 호랑나비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사과가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보다 북쪽에 있는 충북 영동이나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 재배가 더 잘 된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글을 쓰기 위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감나무에 감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잘 열린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는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건너다니고, 그 얼음을 잘라 여름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한강은 얼지 않았다. 2002년 8월 31일 강릉에 850mm의 비가 쏟아졌다. 서울에 그런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과연 지구가 견딜 수 있을까? 지난 1월 31일에는 세계적인 학자 2,500명이 모인 기후변화국가간위원회에서 10년 안에 대한경제안이 온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2차 발표를 했다. 2080년이 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 중 20~30%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살아야 할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60년대 경제개발로 고도성장을 한 나라이다. 잘된 걸로 보면 너무나 잘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좋아진 대신에 나빠진 부분이 있다. 옛날보다 공기가 나빠졌고, 화학물질이 많이 쓰고, 강도 오염되고, 땅도 나빠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사막이 늘어나고, 유전자 조작식품이 나오고, 광우병이 나오는 등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인간이 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사람이 환경운동가이고, 생태학자들이다.

환경이 무엇인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이 환경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 물,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식품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 물, 땅, 식품이 과거보다 좋아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편치 않은 세상이 온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못살던 나라가 짧은 기간 발전을 거듭해 잘사는 나라로 변하면서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외국의 공해사업, 사양사업을 끌어들이다 보니 이것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국내기업도 환경경영 시작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하는 길

환경운동이 시작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인간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피해를 주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환경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생겼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기업이 생기면서 이것이 환경경영이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에 환경경영이 도입된 것은 10여 년 정도 됐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는 1991년 발생한 폐놀사건이었다. 두산전자가 30톤의 폐놀을 대구시민의 상수원인 다사수원지에 유출했고, 이 오염된 물이 48시간 동안 가정에 공급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항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공장 가동이 재개됐고, 2차 사건이 터지면서 환경부장·차관이 동시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환경단체에서 계열사인 OB맥주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70%에 육박하던 OB맥주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 예는 우리나라 기업이 환경문제를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는데 영향을 줬다.

지금은 국내기업 50곳에서 환경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펼치며 꾸준히 나무를 심었다. 나무 심기뿐 아니라 생산 공정을 점검하여 폐기물, 물사용량, 에너지 등도 환경적 관점에서 조절했다. 유한킴벌리는 환경경영을 마케팅에도 활용해 결국 매출액과 순이익이 10배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롯데도 환경가치경영기업을 선포하고 매출액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옛 미도파 백화점을 영프라자로 만들면서 외관을 모두 유리로 장식해 자연 빛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였다. 또 1년에 7억장이나 되는 전단지를 모두 재활용하고, 어린이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철새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학생이 환경 논문대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

아직도 환경 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 폐놀사건으로 OB맥주 불매운동을 할 때, '당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기업이 환경에 대한 장벽이 많기 때문에 그 장벽을 뚫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자제품에 납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납땀을 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납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납, 카드뮴, 크롬 등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전면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도요타자동차이다. 자동차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내놓는데, 과거에 100이라는 유해물질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90으로 줄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을 기업 스스로가 했을까,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다. 1960년대 일본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배기가스가 늘어나고 광학 스모그로 어린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국회에서 1년 내내 공해를 가지고 토론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10분의 1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게 '머스키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강력히 로비를 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지시켰다. 일본도 도요타, 닛산 등이 로비를 했지만 혼다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혼다는 70년대 당시 오토바이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서 개발을 했으니 도요타나 닛산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1992년에는 도요타의 회장이 획기적인 자동차를 개발하자고 해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카이다. 1997년 처음 만들었는데,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그에 맞춰 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1리터 당 35km를 달릴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했다. 도요타자동차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더욱 노력했기에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기업,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도요타자동차는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었다. 결국 환경경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된 것이고, 지구 환경문제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소니에서 생산하는 워크맨은 과거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니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MP3도 우리나라와 애플로 모두 넘어갔다. 그리고 소니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많이 만든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세관에서 검사를 받던 제품들에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가 나왔다. 결국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고 이를 폐기하는데 1억 6천만불의 비용이 들었다. 소니는 그 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지금 소니 본사에 가면 환경전시실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CO2를 줄이고, 자원의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물 사용량과 화학물질의 양도 줄이고, 매년 환경경영보

고서를 내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이 환경경영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이제 환경이 밥을 먹여주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20세기에 비교하여 생각해보자. 제가 1960년대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먼저 미도파백화점에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8층짜리 반도호텔이었다. 이렇듯 50년 전 자연과 비슷한 모습이던 서울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지금 생각하면 50년 전 서울을 다시

디자인하여 도시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을 것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여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강원도를 꼽는다. 교통이 불편한데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연과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과 가까웠고, 그 이후에는 아주 편해졌다. 하지만 집안에 전자제품을 가득 채워 놓은 지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못 견디고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주말에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가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한다. 인간의 본능은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원도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마케팅이고, 생태가 마케팅이다. 최근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근처 상가들의 매출도 상승했다. 뚝섬에 있는 서울숲으로 인해 그 동네 아파트가 격도 엄청 올랐다. 이제는 숲이 보이고, 강이 보이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우리가 흔히 '환경이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환경이 밥을 먹여주는 시대'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프랑스는 산업혁명 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 공업화를 이루었지만 가장 못 사는 곳이 됐다는 말을 프랑스 대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잘 살았지만 산업은 사양화되기 마련이고, 환경은 나빠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범죄율도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된 나라가 지금은 가장 못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문화유적지를 잘 보존한 곳과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 잘 사는 곳이 되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그냥 팔지 않는다. 포도주용 포도를 심어 각각의 이름을 붙인 와인을 만들어 판다. 개개인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그 포도주를 증류시켜 꼬냑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가 더 올라간다. 사람들은 자연히

브랜드가 있는 마을을 찾게 되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 음식점에서 와인을 마시고, 그 음식점에는 농민들이 만든 안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문화재, 미술품을 보기 위해 루브르박물관에 가는 것이고, 마르세유궁전에 가는 것이다. 결국은 환경과 문화를 잘 발달시켜야 한다.

이제 '환경이 밥 먹여 주냐',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존된 환경을 이용해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고령화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21세기에 맞는 산업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환경에 투자하면 골치 아프고 돈 많이 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래예측은 역발상으로 준비해야

앞으로 중요한 일을 찾는 것이 우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1세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란 힘들다. 하지만 예측해야 된다. 저는 4가지로 생각한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가. 지금은 중요하데 앞으로는 필요 없는 일인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일인가. 지금도 중요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찾는 것과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중요한 일을 찾는 것이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도 그 부분이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휴대폰은 고가의 제품이었다, 기능도 걸고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크기도 작아지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100원으로도 살 수 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면 30년간 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식 반감기가 짧아져 1.8년이다. 정보는 3년이고, 가장 긴 농업이 18년이다. 사회과학이나 철학은 지식 반감기가 없다. 하지만 자연과학은 아주 짧아지고 있다. 템포가 아주 짧아지기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세계 최고 100대'만 보면, 국내 최고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 벤쿠버만 보아도 달라지고, 세계에서 경영을 제일 잘하는 GE에 하루만 방문해도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여러분이나 지나 어릴 적에 겨울에는 춥게 살았고, 여름에는 덥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다 보니 세계에서 CO2발생 10위 국가가 됐고, 석유수입은 세계 4위 국가가 됐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이 853억불이었다. 80조원을 쓴 것이다. 우리나라 총 GDP가 850조원이니, 10분의 1을 에너지 소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선진국의 할당을 받게 되어있다. 우리가 할당을 받으면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된다. 2013



년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없다. 저는 92년부터 CO2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92년도에 CO2 발생률이 2억 5천만톤이었으나 금년에 5억톤을 초과했다. 내년부터 2005년도 대비 5.2%를 줄여야 한다. 그보다 양이 많으면 배출부과금을 내야 되고, 목표보다 많이 쓴 나라는 적게 쓴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1억톤을 사야한다면 우리 경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조력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70년대 석유가 2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0달러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100달러가 넘을 것이다. 중국, 인도 등의 석유소비 증가로 석유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에너지를 확보하는 사람이 환경도 살리고 세계 경제를 잡게 된다. 그런데 태양에너지, 태양전지가 뭔가. 바로 반도체이다. 반도체를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역발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 세워야 할 때 인간은 결국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지금은 생산품 중심,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산업의 13%이고 87%가 3차 산업이다. 결국 우리가 3차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컨벤션 산업, 문화, 영화, 생태관광, 유통, 금융, 교육, 의료를 모두 준비해야 개방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구멍가게가 외국의 슈퍼, 국내의 대기업에 밀려 지금 경쟁이 되질 않는다. 결국은 이러한 중소기업, 자영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과정도 6살부터 20대까지 공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때 하고 30대 후반에 1년 공부하고, 또 50~60대에 3년 정도 더 공부하여 인생 3모작의 시기를 뒤야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 전에는 51세였고, 현재는 78세이다. 여러

분이 4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미 평균수명을 사신 것이다. 그때 사는 분이 지금도 반 이상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대는 150년까지 산다는 것이며, 그것은 20세기부터 22세기까지 산다는 것이다. 결혼하면 120년을 살아야 한다. 결혼제도도 바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요동치고 있기에 과거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행하게도 21세기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학자가 모여 21세기에 무엇이 확실히 일어날 것인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핵 테러'였다.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며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생명이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버리면 자연도 우리 인간을 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을 버리면 중국이 사막화되어 황사가 심해지고, 물이 부족해진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양식도 줄이고, 나눠 쓰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고 살면 우리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힘들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국토의 6배를 사용하고 있고, 식량도 75%를 수입하고 있다. 자원도 수입을 한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가져다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밥을 많이 먹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생태적인 방향의 질을 높여야 환경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여러분도 환경운동은 환경 부서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니도, 도요타도, 유한킴벌리도, 롯데도 그랬듯이 CEO가 결단을 내려야 변화가 온다. 토론도 환경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에서 하면서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21세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KH&H**

인도주의는 '불구하고' 정신이 우선돼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사진 오경근 원장

"적십자의 대북지원은 시장논리에 따른 상호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냉전논리로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어요. 인도주의적 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불구하고' 정신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대북지원은 상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일침을 가한 말이다. 여기에 붙여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표현하기보다는 같은 민족간의 평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드는 비용, 즉 '평화퍼주기'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2.13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재는 미국의 한반도정책 수정 변화는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변화라며 낙관은 이르다고 말한다. 부시 행정부가 중동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을 성공모델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재는 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주화에서 확인되는 정통성과 경제성장에서 얻어지는 효율성의 가치가 함께 신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앞으로 북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한완상 총재를 만나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지원 등 대한적십자사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와 함께 우리사회 원로로서 남북관계, 진보·보수문제, 교육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

대담: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면회소 공사도 재개되고 화상상봉도 열렸는데요. 이산가족의 고통화를 생각하면 향후 구상도 시급해 보입니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120가족이 화상상봉을 했죠. 또 5월 9일부터는 금강산에서 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래 화상상봉은 대면상봉으로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이 점에서 내년 봄 완공 예정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기다려집니다. 면회소가 완공되면 금강산에서 대면상봉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산가족 면회를 신청한 약 9만4000명 중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한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 중 80대 이상이 30%를 넘을 정도로 고통화가 심각합니다. 하루 빨리 상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죠.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풀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분단에서 오는 고통 즉, 인간고통, 가족고통을 덜어주는 일인데 적십자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도 더 잘 활성화되며, 이것이 마침내 통일로 가는 길로 연결됩니다.

한완상 총재

1936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美 예모리대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방송통신대, 상지대, 한성대 총장도 역임했다. 북한육수수심기법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며, 2004년 12월 대한적십자사 제24대 총장에 취임했다.

지난 4월 13일 끝난 8차 남북 적십자회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별도상봉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라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북 당국에 의하면 포로문제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이미 해결했고, 납북자로 불리는 3천800명 중 3천400명은 이미 송환되었고, 나머지 400여명은 귀순자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당초 예상했던 결과였죠.

그러나 만족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화상상봉을 8월 15일과 추석 등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고, 5월 15차 대면상봉에 이어 추서에 16차 상봉을 추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13 합의 후 긴박했던 한반도 정세가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13 합의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쉽게 진척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고 봐요.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고 변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던 부시 행정부가 갑자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화했다는 점이 과연 근본적인 변화일까 하는 점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이 성경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아서 그렇게 유턴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라크전쟁은 명분을 잃었고, 전쟁을 주도하던 네오콘들은 퇴조하기 시작했죠. 또한 지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 이라크에서 실패한 만큼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난날의 원수, 악의 축에 대해 현실적 재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한반도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전술적으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의 향후 노력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적 변화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은 전술적 변화를 정책적 변화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죠.

북한 또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체제안정보장, 식량과 에너지 문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단순히 외교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적으로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기대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북한이 탄력성 있게 나와야 하지요.

정치권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대북지원은 상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불구하고' 정신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준만큼 받겠다는 것은 시장의 논리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준다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호혜적 상호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면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고, 두 번째는 당국간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도 차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상호주의 차원입니다. 달리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배제해야 하는 차원입니다. 결국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불구하고' 정신을 지켜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호혜적인 상호주의 지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투명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우리도 북한측에 확실히 따져야 하죠. 또한 대북지원을 두고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쌀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한줌의 쌀을 나눠준다고 해서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GDP가 800조원이 넘는데, 북한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1조원에 미달합니다. GDP의 1,000분의 1을 주면서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평화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같은 민족간의 평화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드는 평화 비용으로 생각하지는 거죠.





적십자 회비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정한 선진국은 군사력만 강한 나라도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억울한 인간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죠. 억울한 인간고통이라는 것은 전쟁, 자연재난, 질병, 부적절한 사회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고 덜어주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히 노력하는가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국방력이 강하고 경제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김구 선생은 해방 직후 '나는 우리나라가 군사대국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경제대국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이 되길 원한다'라는 뜻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대국이 바로 인간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설에 저는 손주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한 달에 1천원씩 10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게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적십자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한 겁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돈은 갚으라고 했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10년간 12만원을 자녀의 따뜻한 인감됨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나라가 185개국입니다. 그 중 한국이 연맹에 내는 분담금이 가입 국가 중 9등이죠. 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인도주의 사업에서도 앞서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화, 생명, 건강이라는 세 가지 가치 아래 140여 년간 지속된 적십자의 '불구하고'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대복지원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적십자사는 쌀, 비료의 지원이나 수해복구 등 긴급 구호성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도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의 보건환경개

선이고, 또 하나는 산림 녹화사업입니다. 북한의 험벗은 산이 홍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농경지 유실로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죠. 녹화사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6월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만약 북한이 원한다면 중장기발전 관점에서 북한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 일에 대한적십자사가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현되면 실항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도 '1사 1산 푸르게 하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산도 우리 모두의 산이 되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은 한국정치사의 흐름을 정통성과 효율성의 두 가치로 구분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선진화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면에는 민주화세력이 지난 10년간 실패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다시 선진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보수주의에서 외치는 선진화는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회고해 보면 지난 10년간 정통성의 수준이 민주화를 통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지나친 탈권위주의화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권위마저도 훼손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렇다고 민주화를 무시하자는 생각은 위험하죠. 아직 우리사회에는 민주화가 진척되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실패로 단정한 후 선진화를 추구하자는 생각은 위험하고도 단순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주장입니다.

진정한 선진화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각 분야가 정당하고 투명한 경쟁과정에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성을 갖추면서 국력이 신장하게 되면서 더욱 그것을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국내외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총재님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학자이십니다. 과거 민주화 과정과 지금 달성된 민주화를 보면서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일각에서 마치 현 정부가 옛날 우리의 기본인권을 박탈했던 그 정권과 같다고 착각하고 현 정부를 극복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일부 투쟁 지향적인 민주 시민운동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쟁적으로만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관철하려는 것은 성숙성이 필요해요. 자유가 없던 시절에는 그것이 용기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용기가 아니라 권력투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진보개혁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과거의 초심이 관철됐는지를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진보세력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무 앞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위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국민보다 한두 발짝 앞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교육부총리도 역임하시고 대학에도 오래 계셨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문제를 어떻게 보시지요.

최근 대학의 '3불정책' 논란이 뜨거운데,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정책의 잘못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의 질이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세계적인 수학, 과학경시대회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만 가면 그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불정책은 모두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3불정책이 나온 배경도 입시제도에 의해 '한 줄 서기'로 대학이 서열화 되고, 이것이 나아가 미래의 사회계층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적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소위 일류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3불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문대학이 본고사로 더욱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등급제로 수준 높은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고, 기여입학제로 부자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겠다는 것은 온당한 요구가 아니죠. 결국 3불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명문대들의 이기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가건 대학 입학 후 4년 동안 얼마나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제대로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나눔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미국 텍사스의 릭 페리 주지사는 미국 대학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대학 입학이 아닌 졸업생의 능력에 중점을 뒀다 하고 했습니다. 미국처럼 대학경쟁력이

높은 나라에서도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대학들도 3불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더 잘 교육시켜서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에는 대입(大入)정책이 아닌 '대출(大出)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은 미국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총기사용에 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질에 관한 문제죠. 특히 32명의 희생자가 모두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경쟁에서 승리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한국인이나 한국사회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조승희가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15년을 미국사회에서 생활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사회도 깊이 성찰해볼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미국 언론들의 성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인종문제나 특정 국적문제와 전혀 연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점에서 우리 언론도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미국에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만일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관점에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총재님께서도 평소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때부터 여러 번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한 것이 2003년 서울의 모 대학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기억되는군요. 인간개발연구원은 1970년대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인간개발'을 모토로 우리사회에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온 기관입니다. 연구원이 지난 32년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을 가지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죠. 젊어서 부리는 욕심은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노욕'은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욕심없는 인간개발 정신은 앞으로 더 확고한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큰 버팀목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KHD)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특별기획-창조경영 | 본원은 지난 2월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를 통해 두바이 창조경영을 논하는 자리를 가진데 이어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상상력의 제국' 두바이 현지를 시찰하는 <두바이창조경영시찰단>을 파견했다. 이에 참가자 중 김창송 회장과 양병무 원장의 글을 통해 시찰 분위기를 전하는 특별기획 지면을 마련한다. _ 편집자 주

사막에 피는 꽃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사진 제공 : 서정민 기자

두바이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 우리 일행 20여 명은 인간개발연구원이 마련한 길다란 명찰을 목에 걸었다. 중동전문 특파원과 함께 하는 세계의 허브 '두바이 창조경영시찰단'이다. 나의 관심은 삼성그룹의 '부르즈 두바이' 건설현장이었다.

사막의 도시를 내리찍는 석양은 어느덧 기울어져 저만치 멀게만 보인다. 때마침 노무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다. 노란색 퇴근버스 속에는 젊은 일꾼들이 마치 콩나물시루처럼 앉고서고 빼곡히 차있다. 하나같이 하루의 고된 노동에 지친 듯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지쳐 있는가 하면, 검은 얼굴에 하얀 이빨만 앙상히 들어낸 침울한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측은한 연민의 정이 솟아난다. 이들은 이웃나라 인도의 젊은이들이 태반이라 한다. 거미줄 같이 파헤쳐 놓은 사막의 비포장도로를 그들을 실은 차가 덜커덩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황사 바람이 풍무니에서 일어나니 시야가 마치 안개 낀 들녘 같기만 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꾸역꾸역 밀려나오는 짐짝 같은 퇴근버스는 그칠 줄 모른다. 죄수옷 같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노무자들이 있는가 하면 노란색 옷에 노란 안전모를 받쳐 쓴 조금은 직급이 높아 보이는 구별된 차량들도 간혹 있다. 과연 저들의 하루 노임은 얼마일까.

순간 나는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중동 근로자들도 저렇게 아픔을 겪었으리라 생각하니 이들이야말로 이국땅의 남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같기만 하다. 한때 건설붐이 매스컴을 탈 때 우리의 젊은이들은 힘든 경쟁마저 뚫고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던가. 고향의 찌든 삶을 피해 혹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우리는 청춘을 일찍이 이렇게 바다 건너에서 바쳐야 했다. 출렁이는 차 속에서 낡은 필름같이 지난날이 끝없이 스쳐지나간다.

**사막에 내리찍는 석양 아래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두바이
지난날 저임금 노동력 송출 국가에서 고급인력 파견으로 초대형 프로젝트 주도하는 한국기업**

어느덧 우리를 태운 차는 목적지 건설현장 사무실에 닿았다. 정문을 열어주는 키 큰 수위들이 늠름하게 보인다. 이미 사전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나와 서있는 한국인이 눈에 띈다. 그는 작열하는 더위 속에서도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타이로 정장을 하고 섰으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에게 일일이 수인사로 고마움을 표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보안상의 문제는 물론 공사가 한참인 지점이야말로 외부에 노출시킬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분초를 다투는 그들로서는 결코 우리의 방문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에 한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안내자를 따라 들어선 브리핑실은 어느 중역회의실 같이 밤색 타원형 테이블에는 건설현장 개요가 간략하게 적힌 브로셔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역시 삼성다운 이미지가 구석구석에서 묻어난다. 자리가 정돈되자 뜻밖에도 검정색 유니폼을 단정히 입은 깔끔한 인상의 한국인 여사원이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건설현장의 설명이 있었다. 참으로 까랑까랑한 다듬어진 음성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이어서 오늘의 총책임 K 부사장이 영상과 함께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두바이'라고 호칭하는 이 160층 건물은 지난 2005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총 47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공사일수는 1천 429일이며, 면적은 1만 5,600평방미터, 총 건평은 47만 9,830 평방미터, 건물높이는 세계 제일인 7백 미터입니다."

본 건물의 용도로서는 주차장(지하층)과 사무실(37층부터), 그리고 호텔로서 방은 304룸, 그리고 그 상층은 주거 아파트로서 901실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는 세계에 전례 없는 초현대식 설계로 각국 최고의 부호들만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상당한 물량이 계약 완료되었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VIP 고객을 유치하여 그 최고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또 다른 최고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이라고 한다. 나는 그 환상적인 아이디어에 할 말을 잃었다. 한편 건물의 높이는 서울의 도봉산 높이와도 같으며 사실 실제 건물의 높이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베일에 가려 있다고 한다. 그것이 또한 수수께끼가 되어 궁금증이 더하여 매스컴을 탄다고 한다. 우리의 질의를 친절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한 그는 늙은 품격있는 전형적인 CEO였다. 늦은 시간까지 조금도 피로함 없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그들 삼성의 일꾼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두바이 하늘의 어두움과 함께 그들의 전송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그토록 봄비던 황사 길은 태풍이 지나간 듯 이제야 사막의 밤하늘 같이 고요하기만 하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나는 조금 전 K부사장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새삼 떠오른다. "세계적인 이 공사에 우리 삼성에서는 서울로부터 단 19명의 임원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공이나 노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부장, 차장 등 관리직 고급 인력이 전부입니다. 그 옛날 중동공사 때처럼 저임금 노동력을 수출하던 시대는 이미 옛 이야기입니다."

고공 하늘 속에서 3일에 1개 층씩 오르는 신공법은 세계에 유례 없는 초정밀 현대 기법이라고 한다. 노동력은 주변의 인도를 비롯한 파키스탄, 이란 노무자들로 넉넉히 충당된다고 한다. 한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면 인도인 12명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지난날 우리 근로자들 자리를 그들이 어느덧 차지하고 있다. 지구촌은 이렇게 빠르게 순환되고 있었다. 과연 이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스피드 경영현장을 몸소 밟고 서 있어보니 그 무언가 경의적인 변화에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만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이렇게 지구촌의 무한 경쟁 속에 세계 유일무이의 신의 창조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한국 삼성의 두뇌집단에 머리 숙여질 뿐이다.

무한 상상력으로 지구촌의 새벽을 깨우는 두바이 한계를 모르는 젊은 지도자, 세이크 무하마드

그 옛날 우리의 새마를 노래가 어느덧 이제 두바이 하늘에 배아리치고 있는 것만 같다. 이른 새벽부터 호텔 TV에서는 오직 건설, 건설을 연호하고 있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지도자가 손수 육성으로 "우리는 가장 빠르고(Faster), 우리는 가장 높고(Taller), 우리는 가장 혁신(Innovation)적인 사고로, 오늘도 달려갑시다"라고 외친다. 이제야 고난을 극복한 그들은 지금은 어느덧 그 사막의 불모지에 푸른 잔디와 대추야자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가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숲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며 힘찬 행진곡을 울린다.

정성을 다하여 배우고(Learning) 가르치며(Teaching) 창조(Creating)

의 신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겸손히 외치고 있다. TV는 계속하여 아침 붉은 해가 유유히 떠오르며 희망의 순간을 비친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놀라운 시속으로 지구촌의 새벽잠을 깨우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선발주자로 달리고 있다.

"한계란 없다. 다만 당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Limit only in your imagination)" 세이크 무하마드가 주장하는 비전이다. 그는 현명하다. "국민여러분! 겨우 20년뿐인 오일 매장량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달려나아가야 한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온 국민의 호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유 깊은 시인이자 젊은 지도자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 최고를 향해 또다시 달려나갈 때

'세계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뛰겠습니다' 이 구호는 삼성맨들이 중동하늘에 띄우는 외침이다. 이제 이 절규는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다. 코리아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우리는 이제 다함께 '보았노라 들었노라' 하고 내 땅 내 하늘에서도 외쳐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장롱 속의 금을 모아 IMF도 슬기롭게 헤쳐 한강의 기적도 이룩한 오탁이 백성들이다. 신화창조의 기수들이다. 지금이야말로 '굉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제2의 새마를 정신으로 세계 최고를 향해 우리 모두 또다시 달려가야 하겠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고난이 저 만치서 기다리는 물살 센 강물을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건너보았다. 우리 다 함께 21세기 저 높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다.

세계의 허브, 사막의 두바이를 찾은 이번 짧은 산업시찰이야말로 높고 깊은 발상전환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인간개발연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동행한 남태 회원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우리 모두 두바이처럼 창조경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당신이 사슴이던 사자이던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라야 성공할 수 있다." 세이크 무하마드 



사진 제공 : 서정민 기자



김창송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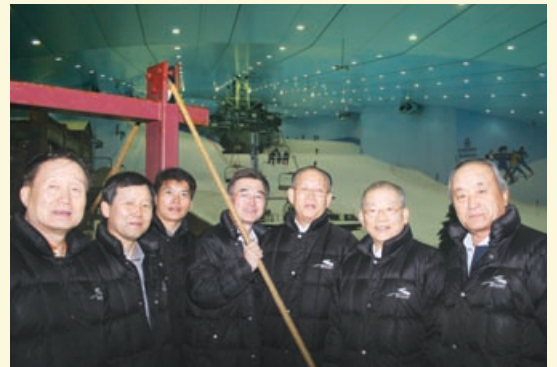
1928년 생으로 중앙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1968년 성원약품상사를 설립해 현재의 성원교역에 이르고 있다.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인협회 이사, 국제기독교실업인회 아시아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협의회 회장,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중앙회장, 기독교실업인회 제8차 세계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낸 바 있다.



두바이의 기적과 창조경영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숙명여대 초빙교수

중동의 작은 토후국 두바이가 뜨고 있다. "두바이를 보지 않고 창조경영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두바이가 창조경영의 모델로 등장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 시장 등 정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두바이를 다녀왔다. 삼성그룹, LG그룹, 웅진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룹총수와 임원들의 전략회의를 두바이에서 개최하고 있다.



두바이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

도대체 두바이에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관객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바이가 황량한 사막 위에 만들어 놓은 '기적'을 보러 오는 것이다. 두바이 드라마는 극적인 흥행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바이 국토는 제주도의 두 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며, 인구도 고작 140만 명에 불과하다.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석유와 사막 위의 모래밖에 없다. 세계의 이목을 모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조건이다.

하지만 두바이의 기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같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두바이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굴레를 벗어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바이가 내보내는 연속극을 기대와 호기심 속에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두바이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기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사막 위의 실내스키장, 사막 사파리 투어, 삼성건설이 짓고 있는 160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 세계 최고급의 7성급 알 아랍 호텔, 야자수 형태의 인공섬, 세계적인 기업들이 운집한 자유무역지대 등 두바이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행정의 스피드도 놀랍다. 외국인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데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규제가 없는 행정을 자랑한다.

게다가 건설 중인 대형프로젝트만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 세계 포크레인의 20%가 두바이에 와 있다고 할만큼 건설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 프로젝트 3개, 디즈니랜드를 무색하게 만들 세계 최대 테마파크 두바이랜드, 최고급 5성급 해저호텔 등 2014년이 되면 두바이는 오늘날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항은 중동의 허브가 되어 2분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새벽에도 입국자들로 북아성을 이룬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만들어 가는 기적

두바이 기적의 원천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셰이크 무하마드 국왕의 리더십이다. 그의 리더십이 기적을 창출하고 창조경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첫째, 무한한 상상력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시인으로서 풍부한 감성으로 상상의 나라를 떠먼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 왔다. 작열하는 태양과 모래뿐인 불모의 땅을 최대, 최초, 최고에 무모하게 도전하며 꿈의 오아시스로 변화시켰다.

둘째,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이다.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보아서 안 된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오늘을 사는 인기영합주의를 배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석유매장량이 20년이면 바닥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의 양식을 위해 무역,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의 통찰력은 사슴과 사자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슴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사자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되새긴다. 같은 공간에 사는

사자는 눈을 뜰 때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약한 사슴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함을 깨닫는다. 당신이 사슴이든 사자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라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추진력이다. 모든 목표에는 장애물이 따른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장애요인도 커지는 법이다. 그는 2000여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씽크탱크를 앞세워 철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실천프로그램을 만든 후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실패 말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외치면서 도전제일주의를 표방한 결과 10년만에 작은 어촌 마을을 세계의 중심무대로 끌어 올려 두바이 신드롬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세계화·정보화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알고 자본주의가 마음껏 숨쉬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비즈니스 천국을 만들었다. 모든 상품에 무관세를 도입하여 두바이를 그야말로 'Do Buy' 할 수밖에 없는 쇼핑천국으로 개조했다.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송금도 자유롭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한 결과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슬람 전통도 과감히 혁파하여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술과 담배 등 금기사항도 현실화시킴으로써 중동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사상누각을 무색케 하는 두바이 신드롬

우리의 잠재력 일깨우는 자극제 될 것

사막 위에 우뚝 선 실내스키장을 찾은 부원광학의 박춘봉 회장은 "여기에 와 보니 혁신, 창의력, 역발상이란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막 위의 스케이트장이란 실태 앞에서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두바이를 찾아 상상경영과 창조경영을 배워야 한다"며 "이제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말의 의미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 두바이의 기적은 바로 사상누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사상누각의 뜻도 바뀌어야 할만큼 두바이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두바이의 기적은 한국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다. 두바이를 찾은 기업인들은 우리의 경제개발 초기의 향수를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한 지력을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두바이를 다녀 온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두바이가 한국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한다.

"두바이가 하는 창조경영은 오히려 한국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것은 달나라 간 것도 핵을 만든 것도 아니다.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천연자원 하나 없이 짚신 신던 나라가 50여 년만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지금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있는 기업도 바로 한국기업이 아닌가. 두바이는 우리에게 망각했던 우리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제52회 밀양시 '밀양시민대학' 3월 23일(금)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밀양시민대학'은 본원과 밀양시(시장 엄용수)가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밀양시민대학은 새로

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에 힘입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밀양시는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밀양시의 지적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3월 23일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제52회 강연을 해주신 김인세 총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or.kr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밀양대와 부산대의 통합을 위해 시민들께 허락 받고자 함이었고, 오늘은 밀양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기 위해서는 역시 과학기술이 발달해야겠죠. 과학기술을 이용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야 부를 창조하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결국 윤택한 생활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다음은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정신적 자세가 바로 서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결국 인문사회과학과 실제적인 과학과 공학, 의학 등이 서로 결부되어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없어

지역사회도 변화를 시작할 때, 대학의 역할 중요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많아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부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지식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은 똑같은데, 10년쯤 못 만났던 친구를 보면서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늙었다는 변화된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변하는데 자신만 변화하지 않는다면 혼자 뒤처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위치에서 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밀양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밀양의 변화는 첫째, 부산대가 부산을 벗어나서 밀양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대가 밀양에 와서 뭘 할까요. 밀양시민과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겁니다. 밀양 청정지역,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채소는 전국에서 최고입니

다. 물론 이런 것도 계속 해야겠지만 언제까지 그 산출물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먹고살고, 다른 지역보다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 특히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활동과 함께 그들이 미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이 세상을 떠나도 학생들이 성장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수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과학과 정신적인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가 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시민들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기술도 알려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야 돼요. 사립대는 재정적으로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국립대도 필요 경비를 받겠지만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교수 월급의 절반을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돌려 줘야 하는 거죠. 즉, 대학은 기술개발, 인력개발, 문화개발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지역사회가 그 대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존재가치를 잃게 됩니다.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국립대 역할

'밀양밸리' 건설 위한 연구 계획

부산대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 순위 5위 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얼마 전 유럽의 어느 기관에서 세계 3천 개 대학의 논문, 교육상태, 재정 등을 종합해 평가한 적이 있는데, 부산대가 790등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서울대 다음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이 부산대입니다. 그런데 부산대가 790등이고 다른 대학은 1000등 밖으로 벗어났어요. 부산대가 작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12등이었는데, 올해는 6등입니다. 그러나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특수대학임을 감안하면 부산대가 종합대학 중 4등이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김인세 총장

1947년 생으로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병원 마취과장, 부산대 의과대학장, 대한 뇌신경 마취연구회 회장, 대한마취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부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공동이사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행복을 여는 도시 함께하는 밀양

변화와 혁신의 중심 밀양시민대학

밀양시



를 제외하면 부산대가 가장 앞서는 거죠.

부산대는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양산의 800만 시민들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이끌어 가고, 돈을 만들어 주고, 공장이나 산업체를 우리 기술력으로 이끌어 가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부산대가 갖고 있어요. 이것이 국립대의 역할이죠. 그래서 부산대는 동남권에서 최고의 대학,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양대와 부산대가 합치고 나서 두 개의 단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15개 단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 2개가 이곳 밀양에 있어요. 먼저 나노과학기술대학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노과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야를 연구하는 겁니다. 나노과학으로 생산된 제품 하나가 농산물 몇 천 개의 컨테이너 분량을 판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산물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업도 하면서 청정지역에 나노과학기술이 접목돼 더욱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결국 부산의 수입도 늘어나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일 이죠.

그리고 생명자원과학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모든 생명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생명자원과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바이오 소재 생산, 육종, 가공, 유통, 인간의 정신건강을 위한 휴양산업, 바이오 자재 생산과 연계된 복합과학분야를 육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생산적 희망이 굉장히 많은 분야죠. 생산적 희망이 많다는 것은 이것을 잘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생산유발 효과가 높아지고 그만큼 수입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고로 밀양시민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거죠.

밀양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생명자원과학은 21세기에 필요한 성장산업인데, 이것이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초미세과학과 합쳐지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밀양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밀양밸리'로 만들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상품으로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돈을 벌게 되면 또 소비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구를 잘 하고는 있으나 국제적으로 공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진들을 데려와 국제공동연구센터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새로운 물질, 약품 하나만 나온다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이는 곧 1만 명이 노력해서 우수한 제품 하나를 만들면 그 1만 명 아래의 10만 명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최첨단의 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에게 특허나 기술을 빼앗기고 우리는 중간에서 하청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돈은 그들이 벌고 우리는 2등국으로 전락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과거 36년간 일본에게 지배당해왔는데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 과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에는 국비, 경남과 밀양시, 민간자본 등 5년간 300억 원이 투입되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또다시 연구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전에 생산품이 나와서 수익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대가 밀양까지 오기 전에 이곳과 가까운 양산에 먼저 의학전문대학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깊어요. 지금 의생명과학연구센터, 국립과학연구수사센터 등의 부서가 양산으로 옮겨 옵니다. 이들이 합쳐지면 생명과학을 연구할 수 있죠. 국내에 이 같은 합동 연구는 최초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병원들이 바로 옆에 자리하게 되는데 2011년이면 완전 개원할 예정입니다. 결국 부산대의 연구인력과 연구력, 양산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 밀양의 나노과학기술과 생명자원과학까지 세 분야가 합쳐지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복합적인 일을 추진해 밀양의 발전방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식으로 변화있는 삶 살아야 하는 시대

이제는 전 국민이 어떤 기술이든 하나씩은 보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중요해진 거죠. 스위스는 바다도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산악지대가 많은 스위스에서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드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지만 전 세계의 돈을 끌어와 금융업을 하면서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아야겠습니까. 쌀농사도 안 되고 소를 키워도 힘든 현실입니다. 지금 FTA싸움을 하지만 10년 뒤에는 할 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 농산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핵심기관이 있어야 하고, 전 국민이 앞으로 과학기술 하나씩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지식으로 한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다양한 지식으로 삶을 변화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전세계 비행기 엔진의 40%를 생산하고, 미국의 GE가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의 열이 1400도까지 올라가요. 이 때 발생하는 열을 낮춰주는 냉각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냉각기술에 관해서는 부산대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을 완전 연소시키는 냉각 부품을 개발해 그들에게 사가라고 했더니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약 이것이 성사되면 1년에 생산유발효과로만 3천억 원이 부산에 떨어지고, 9년 뒤에는 9천억~1조 2천억 원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구결과, 지식, 머리만 사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산학협력을 통해 부산, 경남, 창원에 이것을 만들었고, 1년에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밀양도 앞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지역발전은 그 지역 중심 대학과 연계해 진행해야

대학은 지역의 교육, 문화 모두 책임질 사명 가져

한 달 전쯤 과학기술 부총리께 부산, 경남, 양산, 밀양에서 과학자를 배출하려면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한 인재를 키워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직장이 없어서 모두 대전 대덕단지나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쪽 연구소에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가장 큰 대학과 연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도시의 중심 대학이 지역사회에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그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학과 전문연구소가 합쳐서 지역사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점을 과학기술부총리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대는 양산으로 오면서 밀양의 교육, 문화 모두를 일으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밀양에 김치특구가 생겼는데, 이를 기반으로 김치연구소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고, 김치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에도 자연의학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외과부인과 마취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서양 의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 항생제를 발견하면서 발전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자연의학이 잊혀졌는데, 지금 자연치유의학이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이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연치유는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내과의사에게 처방 받은 것을 그대로 쓰면서 환자의 체질에 따라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주사와 약물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약과 주사를 끊고 자연치유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청정지역인 밀양에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따라 오게 될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예전에 비해 외래환자가 2000명 이상 늘어나 수입도 늘었어요. 이를 통해 제2캠퍼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대가 생각하는 것이 양산에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으므로 자연치유를 국내 최초로 밀양에 건립하자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산에는 생명연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버연구단지를 만들고, 김해에는 의생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밀양이 김해, 양산과 합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생명 관련해서는 청정농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확대시켜 밀양 바이오 명품브랜드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가령 '밀양고추'라는 자체 브랜드를 '부산대 고추'라는 브랜드로 만들면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의 연구진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인 고전의 정신을 현대에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밀양은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 이름을 떨친 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밀양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요. 이제는 이 고장이 역사적으로 우수했음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연구하는 '점필재연구소'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대와 밀양문화원, 밀양시가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통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계속 총장으로 있게 된다면 매년마다 찾아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밀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데,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밀양의 미래를 느낍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칩니다. 

슬픔 딛고 성숙한 사회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조국 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난 한국 교민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자녀를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즈도 "그들에게 자녀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한인사회의 교육열을 지난 4월 15일 버지니아공대 참사의 주인공 조승희와 그 가족이야기를 함께 다루며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서고 있다. 7년 전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시간'이었듯 버지니아공대 사건도 '시간'과 함께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믿는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이 남긴 교훈으로 인해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의 역사를 창조해 왔다. 버지니아공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은 사건의 주범이 조승희라는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원인이 되어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공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함의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조승희의 누나 선경씨는 그가 어릴 때부터 말이 없는 자폐아적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밝히면서 미국교육을 받던 딸라질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 세계를 슬픔에 빠지게 했고 우리는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생의 행동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사당국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는 조승희의 가족들이 자살했을 것으로 짐작하며 가족들의 비참함을 슬퍼하기도 했다.

조승희가 범한 사건은 끔찍스럽지만 미국사회는 조승희를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한국으로 미국사회와 세계의 이목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사회인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제로 삼으려 했다.

미국 시민으로서 교육받은 그가 지닌 인간적 과오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10계명에 명시된 살인죄를 범했다는 점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또 그가 속한 학교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요하고 원한을 푸는 살인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인간교육이 잘못됐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가 밝힌 인간이 지켜야 할 큰 계명은 진리와 사랑과 기록함과 전지전능함의 실체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기의 존엄한 생명을 이웃을 죽이는데 바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바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교육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출세 지향적인 지나친 교육열이 이번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는 권위자들의 비평에 무척 실리게 한다.

... / 한국의 아들이 쏜 총탄에 맞아 / 무참히 희생당한 가족들을 부르며 / 절규하고 통곡하는 이들에게 /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 알지 못합니다 /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 현실이 아닌 꿈이면 좋겠다고 / 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없는 답답함과 / 안타까움으로 잠 안 오는 날들입니다 / 지금은 그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 서로의 슬픔을 포용해야 할 때라며 / 추모의 촛불을 켜는 버지니아 사람들에게 / 두고 두고 저주해도 시원찮을 / 살인자의 이름까지 희생자들과 나란히 / 추모의 돌에 새겨 두고 / '네가 그리도 도움이 필요했는지 몰랐다 / 네 가족의 평화를 빈다'는 쪽지를 / 적어 놓는 그 넓고 따뜻한 마음들에게 /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 울면서 달려가 고마움의 악수를 청하고 싶습니다 / ...

사랑과 용서의 시인 이해인 수녀는 '이 부끄러운 슬픔을 딛고'라는 버지니아공대 참사 추모시에서 한미 양국민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한층 높아진 관계를 성숙시켜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죽은 조승희가 살아있는 '승희 조로' 환생하여 한국과 미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산 제물로 양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기원해 본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인재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생활문화를 실천하자!

김종수 기림산방 원장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 느낄 수 있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한다. 생각이 큰 사람은 큰말과 큰 행동을 하여 신뢰와 존경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편안해진다. 반면 생각이 작은 사람은 작은말과 행동을 하여 미움과 불신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아 인간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를 느껴볼 수가 있다.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모두 커서 서로 판단력이 같아 이해가 되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상식과 지식이 통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크기가 너무나 다르다. 생각의 폭이나 깊이 즉, 크기가 달라서 상식과 지식이 통하지 않아 갈등과 미움, 원한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모두가 생각이 커져서 미움과 불신이 없고, 신뢰와 존경, 이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생각그릇의 차이에 따라 인생도 결정되는 것

정신과 마음 안정돼야 생각영역 커져

생각의 세계는 무한대이다. 모든 생각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의 영역이 크고, 생각그릇이 작은 사람은 생각이 작을 수밖에 없다. 즉, 생각그릇 크기에 따라서 생각그릇이 큰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담을 수 있기에 '천재', '신동', '인재' 소리를 듣게 되고, 생각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정보와 경험을 입력해도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 인재와 둔재의 차이가 바로 생각그릇의 차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의 생각영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생각영역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자. 사람의 생각영역(그릇)을 결정하는 요인

에는 '생각의 폭'과 '생각의 깊이'라는 특성이 있다. 생각의 폭은 '정신'이 주관하고, 생각의 깊이는 '마음'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신은 생각의 폭인 기억력, 순발력, 판단력, 창조력을 주관하고, 마음은 생각의 깊이인 집중력, 지구력, 이해력을 주관한다. 곧 정신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학문, 지식, 정보, 기술, 경험을 요구하지만, 이는 생각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신이 맑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정보경험이 있으면 무엇하나? 정신이 없으면 수많은 생각 재료들을 생각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기억이 나지 않고 '아차' 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현실 판단력이 약해져 각종 사고, 실수, 실패가 많고, 순발력 창조력이 떨어지면서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또한 그 생각에 빠져서 미련하고 답답하여 세상변화에 적응을 못하니 '고집 세다', '곰 같다', '능구렁이',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짜증이 잘나서 신경질적이면서 사소한일에도 화를 잘 낸다. 그리고 큰소리, 쌍소리, 폭력으로 집중력, 지구력이 없고 저절로 생각이 짧아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산만하여 모든 일에 참견 간섭이 심하다. 이런 사람은 '수다쟁이', '잔소리꾼', 많이 배워 모르는 것이 없어 '백과사전'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한 저절로 생각이 짧으니 '배신자', '번덕쟁이', '잔머리꾼', '사기꾼', '여우같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故 정주영 회장이 많이 배워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정신이 맑고 마음이 차분하여 기억력, 판단력, 순발력, 집중력, 이해력, 통찰력이 생긴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지 않았어도, 모르는 일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생각의 크기를 주관하는 정신과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생각은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그릇이 큰

“뱃속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워지면 정신이 맑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인재들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는 생활문화(頭寒足熱)만이 유일한 수행법이다.”

사람은 기억력, 판단력이 있어서 변화가 가능하지만 생각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바꾸라고 해봤자 들을 때만 '꼬덕' 하고 응하는 척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기에 기억력이 없어서 변화가 되질 않는다.

생각그릇이 큰 인재가 필요한 시대
頭寒足熱의 생활문화 필요

생각그릇인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릴 때 정신이 맑아서 기억력, 판단력이 좋고, 마음이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서 집중력 지구력이 있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천재, 신동, 인재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들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뱃속의 열이 올라가 머리가 뜨거워지고 정신이 없어지면서 기억력, 판단력, 창조력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잠재의식 습관이 남게 되고, 마음은 급해지면서 짜증이 잘 나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생각의 깊이가 짧아져 착각과 실수, 실패와 불행이 따르게 되어 인생이 추락하는 것이다. 즉, 뱃속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신경과 세포가 굳어져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생각그릇이 작아지고, 뱃속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워지면 정신이 맑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다. 더구나 차가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과식, 과음을 해 뱃속을 차갑게 하고 뱃속의 열을 머리로 올라가게 하는 '차가운 생활문화'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더운 열대지방에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들은 항상 따뜻한 차, 따뜻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한다. 사람의 몸은 뱃속이 따뜻해지면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정신이 맑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지니 '천천히', '만만디'라는 특성이 생겨났고, 생각에 실수가 적고 확실하고 정확하여 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는 국경이 없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다. 사람이 많으면 무엇 하나 사람 수보다 생각그릇이 큰 인재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뱃속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생각이 좁거나 작아져서 착각과 실수가 생겨나면서 쓰러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인재들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는 생활문화(頭寒足熱)의 생활문화만이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다. **KRUM**

대한민국 ROTC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도시를 떠나 강원도 정선의 전기도 없는 첩첩산중인 기림산방(氣林山房)에서 17년째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 그리고 생각까지 건 강하게 만드는 생활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림산방 7대 수행법을 정리 완성하였으며, 현재 집필과 강연 외에도 참 나를 찾는 수행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김종수 원장

1952년 생으로 명지대를 졸업했다. 현대민족정신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ROTC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도시를 떠나 강원도 정선의 전기도 없는 첩첩산중인 기림산방(氣林山房)에서 17년째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 그리고 생각까지 건 강하게 만드는 생활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림산방 7대 수행법을 정리 완성하였으며, 현재 집필과 강연 외에도 참 나를 찾는 수행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회원 & 연구원 소식

회원소식

- 윤영상 (쑤다산 회장)**은 중국 청도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잡지 <송화강>의 2007년 4월호 표지인물로 선정되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회장은 1990년대 중국의 잠재력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진출하여 '청도다산인조수식유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낯선 환경을 극복하고 수출 2천 5백만불 달성을 앞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영성과와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중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청도 신공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서울)영동농장 회장 겸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 설립이사장인 김용복 회원**은 지난 4월 20일(금)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한사랑농촌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사랑농촌문화상, 농업경영상 등 5개 부문에 각 1천만원의 상금을 5명에게 시상했으며, 전국학생농촌사랑백일장 우수상 부문 초·중·고등부에 각 1백만원씩 3명에게 시상했다.
- 심갑보 삼익THK(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4월 17일(화) 중앙공무원교육원 늘새롬관에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공기업 1급 고위직 인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주)대교(회장 송자)**의 대표 학습지 브랜드인 '눈높이'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발표한 2007 '제9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결과 발표'에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 이윤수 회원**은 지난 3월 23일 (주)KCTC(전 고려종합운수)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 16층
 - 전 화 : 02-754-9240 / 팩 스 : 02-310-0731
 - 주요사업 : 항만해역, 화물자동차운송, 창고보관, 철도운송, 컨테이너 조작, 중량물해상운송
- (주)한국아쿠르트**는 지난 4월 2일(월)자로 김순무 사장을 부회장으로 양기락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 GE동북아시아 본부(사장 겸 최고경영자 스티브 버타미니)**는 지난 4월 1일(일)자로, **GE코리아 신임 대표에 황수 총괄 사장**을 임명하였으며, 이재욱 전 GE회장은 GE헬스케어 아시아성장총괄 사장으로 선



임되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 한양로타리클럽 회장에 선임되었다. 박 회장은 2008년까지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사장은 예술의 저변확대를 통해 우리 이웃이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보 CONBERGENC HALL'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5월 1일 (화) 오후 3~8시
 - 장 소 : BIG DREAM & SUCCESS 교육장(종로구 경운동 SK HUB B동 402호)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조옥환(삼우ENI 사장) 회원**의 장남 규옥군의 결혼이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많은 축하와 관심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5월 6일(일) 오후5시 30분
 - 장소 : G스타워(구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미라(UCS Asset Consulting 대표세무사) 회원**의 부친께서 지난 4월 11일 오전11시 별세하셨습니다.
- 탁재용(흥안실업(주) 회장) 회원**의 장모께서 지난 4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리더홀딩스	전병문 사장	5월1일
부원광학(주)	박춘봉 회장	5월1일
(주)부천	이시원 사장	5월1일
롯데호텔	장경작 사장	5월5일
(주)한국아쿠르트	이은선 고문	5월10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10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13일
거벽엔지니어링(주)	김영관 대표이사	5월20일
동일토건	고재일 회장	5월20일
현대H&S	홍성원 대표이사	5월29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30일

Membership

신규 회원



손병호 (주)성화사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성화빌딩 5층
- 전 화 : 02-715-3894
- 팩 스 : 02-706-9815
- 업 종 : 출판(서적, 정기간행물)
- 추천인 : 전선희 世界平和 超宗教 超國家聯合 평화대사



최중보 파란나라 대표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34-2번지 파란나라빌딩2층
- 전 화 : 032-651-8101
- 팩 스 : 032-651-8100
- 업 종 : 휴게음식업, 건축관리업



김경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검사

- 주 소 : 광주 동구 자산2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 전 화 : 062-224-2035
- 팩 스 : 062-224-4741

**** 가입을 축하드리며 추천해주신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4월 정기 모임으로 지난 4월 23일(월) 한성C.C에서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5월 모임은 일본 도야마 지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 일 시 : 5월 11일(금) ~ 15일(화) 4박 5일(부부동반)
 - 문 의 : 고지석 세무회계사무소 김성철 (T.02-598-3747)
-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우창욱)**는 제132회 5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5월 1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재향군인회 2층 그랜드볼룸 (02-416-6232~3)

- 연 사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주 제 :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항방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김창호)**는 4월 정기모임을 지난 4월 24일(화) 명동로얄호텔에서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4월 월례경기를 한양C.C에서 지난 4월 24일(화)에 가졌습니다.

연구원 소식

- **한중 경제무역교류회 성료**



지난 4월 6일(금) '중국길림성 - 한국간 경제무역교류 및 오찬회가 韓長賦 길림성 성장, 馬明 길림성 상무총장,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원태 금호고속 사장 등 각계 지도

자,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본원이 후원하고 한국산업은행이 협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길림성 인민정부는 길림성의 투자환경과 특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간의 에너지, 농산품가공, 금융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등 양국간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옥수수대를 이용해 연료용 에틸알콜 가공 및 시리즈화학제품 생산, 장백산 관광개발, 자동차 및 부품, 광천수자원개발, 중국 조선간 도로 항구 공업단지 종합개발, 중국 러시아간 도로 항구 통상 종합 개발 등에 관한 프로젝트 협력을 체결했다.

한편 韓長賦 성장은 9월 개최되는 제3회 동북아박람회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참가자들은 중국투자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교류의 시간을 통해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지자체 소식

- **장성군, 흥길동축제**

올해로 9회를 맞는 장성군 흥길동축제가 기존의 관람형 행사에서 탈피, 체험행사를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경영축제로 차별화' 된다. 5월 4일~6일까지 황룡강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 타깃을 어린이로 정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

Membership



그램으로 구성된다. 군은 관내 상무대와 협조, 탱크와 장갑차, 대포 등 군용장비를 직접 타고 체험할 수 있는 '울도국 군사공원'과 전국 유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전국 한시백일장대회를 준비했다. 장

성군은 이번 축제를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영축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천시, 복사골예술제



부천시내 곳곳에서 펼쳐질 복사골예술제가 체험과 공간이 있는 축제, 전통과 현대의 조화, 대중공연의 강화, 문화마케팅 기능 도입 등의 특색을 갖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탄생한다. 오는 5월 2일에는 부천시청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7080콘서트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야제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 전통과 현대예술이 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는 행사기간에 '가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새롭고 입체적인 연출로 체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하동군, 야생차문화축제



제12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천년의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차의 왕국 하동군 화개면 차 시배지(쌍계사) 일원에서 5월 17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왕의 녹차

이젠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핵심 주제에 걸맞게 '내가 만든 왕의 녹차' '천년 차향 특별체험' '명인과 함께하는 왕의 차 마시기' 등 메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내가 만든 왕의 녹차'는 행사기간 동안 3000원의 비용으로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야생차잎을 직접 딴 뒤 비비어 1시간 안에 나만의 녹차를 만들어 왕의 녹차통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과장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2-2203-3500 · 팩 스 : 2203-1974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별도첨부)
회비 납입 (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5,000,000원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 102-910003-99904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LMI는 리더의 새로운 개념

The Total Leader를 지향한다

LMI Total Leader 컨셉은 효과적인 리더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진정으로 임파워링이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은 조직을 통하여 리더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실상, 미래의 조직은 모든 조직원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리드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되도록 임파워링 됩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Total Leader 컨셉의 기초입니다. 이 컨셉은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은, 21세기에 조직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조직을 통하여 리더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원칙은, 리더십개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완전하고 통합된 Total Leadership개발 프로세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단편적이며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으로 리더 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들은 리더십의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특성 또는 어느 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수식하는 수식어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한 톱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리더들을 개발하려 시도하는 것은 마치 퍼팅 연습만을 통하여 프로골퍼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최상의 프로골퍼는 바로 Total Golfer입니다. 그들은 드라이버, 어프로치 샷, 샌드 샷, 피칭, 칩 샷 그리고 퍼팅 모두에 뛰어납니다. 그들은 또한 뜨거운 경쟁의 열기 속에서 게임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강한 정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리더, 즉 Total Leader는 리더십의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Total Leader 컨셉은 어느 개인이 Total Leader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4가지의 영역에 의하여 파악됩니다.

1. **Personal Productivity** - 이는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자신,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업무의 우선 순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 **Personal Leadership** - 이는 자신이 인생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를 리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삶에서 상황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는데 비해 Personal Leadership이 있는 리더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며, 계획과 행동을 통하여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Personal Leadership은 또한 삶의 6대 영역

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Personal Leader(전인형 인간)가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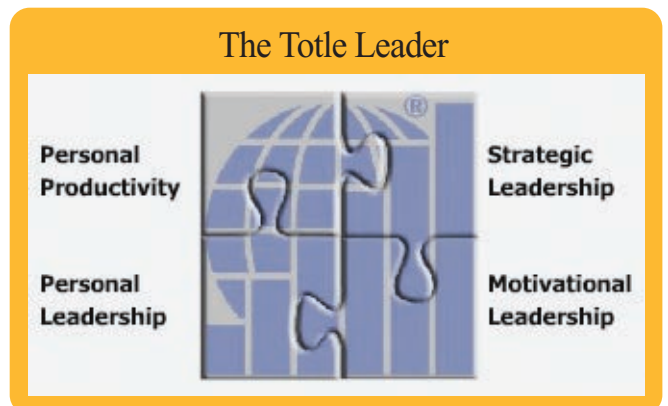
3. **Motivational Leadership** - 이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동기부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Motivational Leader는 모든 진보와 혁신의 원천인 사람이며, 그러므로 21세기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사람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Motivational Leader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잠재력의 보다 많은 부분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 **Strategic Leadership** - Strategic Leadership은 조직을 리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Strategic Leader는 조직의 목적과 비전, 핵심전략, 최적구조, 적재적소배치 그리고 조직의 성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과정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LMI의 Total Leader 컨셉은 철저하고, 완전한 포괄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람을 문자 그대로 Total Leader로 개발합니다. 어느 한 조직에서 최고 리더가 이러한 핵심요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중 몇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많은 리더들이 상기 4개 영역의 리더십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왔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드라이버 연습 한번 없이 중요한 골프시합의 첫 티 박스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연습한 것은 퍼팅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리더십개발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망치뿐일 때, 모든 문제는 망치 못인 것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습니다. **L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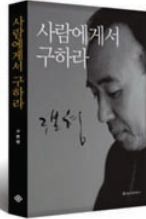
LMI는 많은 조직의 리더들이 Total Leader가 되도록 돕는 독특한 프로세스와 툴을 제공합니다. LMI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사용하여 그 성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Total Leader의 개념에 동의하시면 엘엠아이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사람에게서 구하라"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소장



- 일시 : 2007년 5월 21일(월) 4시-5시 30분
- 장소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체신청빌딩 12층 대회의실 (지하철 3호선 대정역 7번출구)

리더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자 자신을 닮은 사람이다. 리더십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능력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감동시키고 리더가 되는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서 구하라!

이번 독서경영 오픈세미나에서는 인간중심의 경영문화를 32년간 외치던 인간개발연구원이 동지를 만난 기쁨으로 사람과 경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 <사람에게서 구하라>를 선정했다.

이 책은 리더십과 경영이 주제다. 하지만 조직, 시스템, 경영이론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사람 이야기뿐이다. 그것도 현대가 아닌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람들. 춘추전국시대와 21세기는 놀라우리만치 닮았다. 무엇보다 그 시대는 실력만이 통하던 무한경쟁의 시대였다. 수십 개의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명멸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였다. 청운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찾아 '천하'를 누볐다. 인재가 목숨보다 소중한 인재전쟁의 시대였다.

인재를 잘 쓴 나라는 성공하고 인재가 떠나는 나라는 패망했다. 제나라 환공은 자신을 죽이려다 실패한 관중을 기용했다. 그 덕분에 제 환공은 춘추시대의 첫 패자(覇者)가 됐다. 나 이상으로 조직을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진한 감동을 준다.

최근 혁신이라는 이유로 무능한 직원의 퇴출은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다.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만들거나 버려야 하는 시대이다. 국내 최고의 변화경영 전문가 구본형 소장에게 인재를 알아보고 키우는 성현들의 지혜와 함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재를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참가대상 : 기업 CEO, 기관 단체장 및 임직원 외
- 참가비 : 무료 (참가시 명함 제출)
- 참가신청 : 인간개발연구원 노은조 2203-3500 내선106번

"10분 독서운동" 4원칙

독서는 꿈을 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터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10분 독서 운동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복한 독서경영 원칙을 통해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원칙 모두 읽어오

모두가 읽는다는 것은 회사의 직원 전체가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10분독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부서장(팀장)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책 읽기에 열중할 때 직원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며 기업의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 전체에서 진행이 어려다면 부서나 팀단위로 업무 전 10분, 또는 점심 이후, 이른한 오후시간, 퇴근시간 직후 등을 활용해도 좋다.

2원칙 날마다 읽어오

독서는 습관이다. 단 10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매일아침 반복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날마다 책을 읽다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성장하게 된다. 직원들간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기업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하루에 10분 정도 책을 읽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에 10분은 책을 읽는 사회적 제안을 강조하고 싶다.

3원칙 좋아하는 책을 읽어오

정해진 필독도서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꾸준히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사내도서관 도서구입제도 등의 조건을 만들어주자.

자체적으로 책을 가지고 올 경우 부서별로 서로 바꿔서 보는 것도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4원칙 그냥 읽기만 해도

아무리 좋은 독서라도 독후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행복한 책 읽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일체 주지 말자는 의미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이루어진 독서경영이 책을 좋아하는 매니아 위주로 운영되고, 독후감 등이 전제가 되었는데,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책과 멀리있는 직원들을 움직이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Book Review

스페이스 마케팅

홍성용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416쪽

디자인이 훌륭한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경영 전략 힌트



'마케팅'과 '공간'의 관계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제 '공간'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마케팅 전쟁의 현장이 되기도 하다. 이 책

은 사례를 통해 공간에 대해 색다른 발견을 하고,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로써 공간이 갖는 특별한 힘을 자세히 설명한다. 파리의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도쿄 아오야마의 프라다 매장이 쇼핑객 외에도 건물을 구경하는 방문객으로도 가득 차는 등 공간이 도시 기업 장소를 상징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유희화 지음 / 흐름출판 / 301쪽

고전 속에서 찾는 21세기 경영의 지혜



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옛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전속에는 절대적이면서 변함없는 경영의 본질이 담겨 있다. 아무리 최신 경영기법이

나 아이디어가 난무해도 변화의 원칙을 알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 수 있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고전을 읽으며 난관의 돌파구를 찾았다. 이 책에서는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 세네카를 시작으로 손자, 석가모니, 마키아벨리, 클라우제비츠, 피터 드러커, 헤르만 지본, 호암 이병철까지 위대한 리더들의 사상을 경영학적 관점으로 풀어 소개한다.

명품경영학

이면희 지음 / 청년정신 / 666쪽

3.0 CEO가 알아야 할 경영지식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지식을 단순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성실함이 중요했던 시대의 경영자를 1.0 CEO, 통제와 관리 능력이 좌우하던 시대의 경영자를 2.0 CEO,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경영자를 3.0 CEO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인이 생존하기 위해 발빠른 CEO들이 알아야 할 경영지식을 일러준다. 아울러 앞으로 기업과 경영인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지식을 단순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성실함이 중요했던 시대의 경영자를 1.0 CEO, 통제와 관리 능력이 좌우하던 시대의 경영자를 2.0 CEO,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경영자를 3.0 CEO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인이 생존하기 위해 발빠른 CEO들이 알아야 할 경영지식을 일러준다. 아울러 앞으로 기업과 경영인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Culture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데뷔 이후 한번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이번에는 비발디 사계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번에 함께 할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난 10여년간 일본공연만을 뒤로 한 채 돌아가 번번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 기간 및 장소

5월 12일(토)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5월 16일(수) 오후 8: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 02-751-9606~10

· PROGRAM

콜리요프 _곡목미정 (Osraldo Golijov_TBC)
차이코프스키 _곡목미정 (Tchaikovsky_TBC)

INTERMISSION

비발디 _사계 (Sarah Chang, violin)

오페라 <리날도>



오페라 '리날도'는 십자군 영웅 리날도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악한과의 싸움에서 이

긴 후 그의 연인 알미네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로 바로크 양식 특유의 귀족적 예술성에 다채롭고 흥미로운 스토리가 더해져 바로크 오페라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영화 '파리넬리'로 널리 알려진 아리아 '올게하소서(Lascia chio pianga)'는 헨델이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현대의 카운

터테너)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이미 CF, 드라마 등을 통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기간 : 5월 12일(토) ~ 5월 17일(수)

14일, 16일 공연없음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587-1950

뮤지컬 <바람의 나라>

고구려 역사를 소재로 한 김진 원작의 만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바람의 나라'가 다시 선보인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손자인 고구려 제3대 왕인 '무휼(대무신왕)'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11개의 독립된 만화 컷들이 랜덤처럼 넘어가며 클래식, 락, 하우스, 힙합, 테크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에 이미지와 움직임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감정을 배제한 듯 건조하게 시를 읽는 화법, 다중적 스토리, 중복 시제의 독특한 형식으로 작품화되었다.

· 기간 : 5월 5일(토) ~ 5월 25일(금)

·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문의 : 02-523-0984



남이야 뭐라든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자유란

무엇인가. 누구든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말과 일을 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하고 싶은 말과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할 말을 못하고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비례한다고 본다. 자유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나이가 20여세 됐을 때 북경대학에 교환교수로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에 관한 그의 관찰을 <The Problem of China>라는 좋은 책에 담았다. 거기에서 러셀은 중국에는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의외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

나는 6.25사변 당시 한 때, 미국군인들 숲에서 산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그들이 전우(戰友)와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야말로 만리타국에 와서 생사(生死)를 같이 하다가 헤어질 때, 그들은 그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담담한 얼굴로 "So long!" 또는 "Goodbye!" 한마디에 석별의 정을 담은 것을 보았다. 꼭 좋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역시 대국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미국에 가서 대학 학부과정을 다녔는데, 학생 중 성적이 나빠서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더러 보았다. 학우(學友)와 헤어지는 그들은 평상시나 다름없이 정정당당(?)하게 '잘 있

어!' '잘 가!' 하는 것을 보았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마음은, "그래, 난 성적이 나빠서 학교를 떠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학교를 안 다녀도 딱 일을 하면 되잖아"였을 것이고, 보내는 학생은 "아! 그래, 잘해봐"일 것이다. 서로가 이렇게 낙관하는 것이다. 어딘가에 멋이 있다고 나는 보았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반대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될수록 공연히 남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남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이 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할 말을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을 타고났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눈치를 살피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확고한 자기주장이 있을 수 없다. 항상 한쪽으로 쏠리는 형상이 나오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강한 자의 비위를 맞추며, 유행에 민감하다. 예쁜 얼굴이 성형외과로 다 똑같이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지성적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성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책임기를 좋아하고, 많이 생각하고 일에 신중한 반면, 자기 의견을 활발히 내놓고, 자기 능력과 처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자(孔子)는 말했다. '군자는 서로 화목하지만 같지는 않다. 반면, 소인은 서로 같은데도 화목하지 않다(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또 '좋은 사람의 사귀는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君子之交, 淡如水)'는 옛 말이 있다. 담담한 물과 같이 깨끗하고 허욕이 적은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평화롭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KPMG**

무한제어 메카니즘 직선운동 시스템

**SAMICK
THK
LM SYSTEM**

SAMICK THK since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1 삼익THK(주)의 정신은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 *Hot-Line* 입니다.

<http://www.samickthk.co.kr>

항상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삼익!

삼익은 전 생산공정 하나 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최첨단 신기술로 귀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삼익THK주식회사** 
SAMICK THK CO., LTD. 상장회사

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금강타워 16층)
TEL : (02)3454-0811 FAX : (02)3454-0792

전국 대표 전화 : 1588-9931

- 본 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05번지 TEL : (053) 665-7000 FAX : (053) 581-9933
- 수원영업부 : (031) 899-9500 FAX : (031) 286-2535
- 천안영업부 : (041) 621-0170 FAX : (041) 621-0171
- 구미영업부 : (054) 471-2761 FAX : (054) 471-2763
- 대전영업부 : (042) 934-2308 FAX : (042) 934-2307
- 창원영업부 : (055) 285-8472 FAX : (055) 285-8475
- 부산영업부 : (051) 329-8555 FAX : (051) 329-8550
- 인천영업부 : (032) 812-9354 FAX : (032) 812-9352
- 대구영업부 : (053) 581-3421 FAX : (053) 581-3420
- 광주영업부 : (062) 251-4782 FAX : (062) 268-8494
- 울산영업부 : (052) 273-9941 FAX : (052) 273-9820



세상에서 가장 긴 약속

아내와 남편은 가장 긴 약속을 합니다
LG CNS는 고객과 가장 긴 약속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미래가 되어줍니다.
늘 함께하고, 늘 응원하고, 늘 뒤에서 힘이 되어주듯이.
LG CNS도 고객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al IT Service를 통해
LG CNS가 기대보다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드립니다.